

‘우후죽순’ 요양병원... 안전관리는 뒷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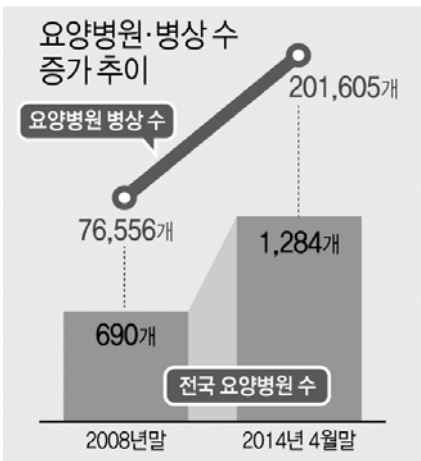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로 본 실태

광주·전남지역 93곳 운영... 요양원도 386곳이나 난립 설립 쉬워 공급과잉... 돈되는 장기입원 환자 유치 급급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요양병원을 비롯한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지역 요양병원은 최근 3년 새 배 이상 급증하는 등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과잉공급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요양병원은 전국적으로도 5년 사이에 배 이상 늘면서 매년 크고 작은 화재와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이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등이 일정 자격만 갖추면 개설할 수 있는데 비해 요양병원은 반드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

의사)만 만들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또한 요양원은 요양병원에 비해 중증환자인 요양등급 1~2등급의 환자들이 인소하며, 부담비용이 요양병원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병상 병원이면서도 일반병원보다 느슨한 설립 기준 때문에 넘치게 공급됐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환자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요양병원 93곳이다. 이 중 광주지역 요양병원은 34곳으로 2010년말 기준 17곳에 비해 3년 새 17곳이 새롭게 개원, 두 배로 늘었다. 전남지역도 2011년 43곳(7530병상)에서 2012년 55곳(1만250병상), 지난해 말까지는 59곳(1만1832병상)으로 급증했다.

전국 요양병원 실태



요양원(노인요양시설)도 비슷한 증가 추세이며 2014년 현재 광주는 100곳, 전남은 286곳에 달한다. 이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일반병원보다 설립이 쉬운 데다 장기입원을 선호하는 노인환자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일반병원을 개설하려면 병상 수 상정에

따라 입원실 수, 진료실 수, 대상환자 수, 담당 직원 수, 일일 재원환자 수, 시간당 취급 환자 수 등 복잡한 규정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30인 이상 시설을 갖추고 하루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다. 심지어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환자여야만 입원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이런 제한을 두고 없는 이점도 있다. 이처럼 느슨한 개설요건과 운영 기준으로 요양병원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병원은 이익을 내기 위해 장기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전남지역 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자 2195명(지난해말 기준) 중 30일 이상 입원자가 1966명(89.6%)으로 10명 중 9명에 달했다.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한 달 이하 입원자는 229명으로 10.4%에 불과했다. 1~3년 입원환자는 704명(32.1%), 3년 이상도 213명(9.7%)에 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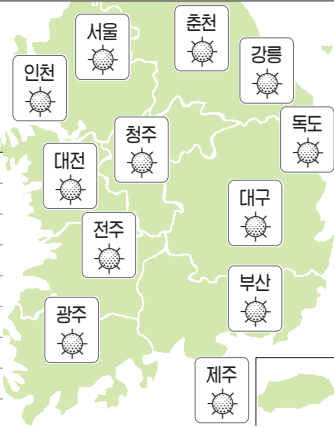
해돋이 05:21 해질 05:43
해짐 19:39 달림 20:01

미세먼지 '약간 나쁨'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7/32	보성	맑음	14/32
목포	맑음	16/28	순천	맑음	16/33
여수	맑음	19/27	영광	맑음	15/28
나주	맑음	13/32	진도	맑음	14/27
완도	맑음	17/30	전주	맑음	16/32
구례	맑음	13/34	군산	맑음	14/28
강진	맑음	14/31	남원	맑음	13/32
해남	맑음	14/30	흑산도	맑음	16/24
장성	맑음	13/32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서~북서	0.5	남서~서	0.5
남해	서부	서~북서	0.5~1.5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서~북서	0.5	남서~서	0.5
남해	서부	서~북서	0.5~1.5	남서~서	0.5~1.5

생활지수

식중독	69
운동	40
빨래	5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간	높이	시간	높이
여수	02:34	07:46	14:32	19:48
	09:20	03:15	21:50	15:18

주간 날씨

30(금)	31(토)	6/1(일)	2(월)	3(화)	4(수)	5(목)
18/33	17/32	18/29	18/27	18/24	18/26	18/28



무릎 꿇고 사과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왼쪽)이 28일 오전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인명 피해를 낸 데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세월호’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지급

범정부사과대책본부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를 위한 계획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28일 전남부터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밤샘 협상에 이어 다시 접촉에 나섰지만 계획서에 증인 명시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게임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소속 30~40명의 유족은 세월호 국조가 시작부터 공천하자 전남부터 귀가도 하지 않은 채 의원회관에서 시위성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

은 특위를 먼저 가동해 국조의 목적과 조사 범위, 조사방법, 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우선 처리하고 증인은 추후 기초조사 등을 거치면서 협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 예정됐던 국조특위 첫 회의와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한편 범정부사과대책본부는 28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실종자·희생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3개월분의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지난 27일까지 진도에 체류 중인 실종자 12가족, 20명이 지원을 신청했으며 계속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스템 개편 안전 최우선” “국민생명 못지켜 죄송”

여야 지도부, 장성 요양병원 방문

여야 지도부는 28일 21명이 사망한 장성군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애초 잡혀있던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참석을 취소하고 참사 현장으로 달려갔

다. 서 위원장은 현장에서 구조와 부상자 치료에도 안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스템을 개편해 안전 최우선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원내지도부 인사들도 이날 현장 방문을 검토했으나,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 협상의 지

연 탓에 장성으로 내려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도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본부장단 회의를 마치고마자 곧장 장성으로 내려가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로했다. 김 대표는 유족들이 모인 전막에서 90도

로 허리를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한 뒤 “스무 분이 넘는 어르신들이 명을 달리하신 것을 보고 온 국민이 이번에는 자식된 심정으로 가슴앓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양승조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성사고 대책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해 소속 위원들을 현장에 급파했다. /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배상금 적다” 70대 노인 서울지하철 전동차에 불 질러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서울 지하철 전동차 객차에 불을 질러 철정행. ○광주시 동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조모(71) 씨는 28일 오전 10시52분께 승객 50여명이 타고 있는 서울 지하철 3호선 3399객차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로 방화.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2000년부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올 3월 광주고법판결 승소했지만 원하는 배상금이 못지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조씨는 “억울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 최근 발생한 지하철 사고를 보고 지하철에 불을 냈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 매각공고

1. 매각대상부동산 (단위: 원)

입찰번호	소재지	면적	용도	입찰예정가
1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882-2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882-3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산205-1	992㎡(300.0평) 724㎡(219.0평) 9223㎡(2,789.9평)	전 전 임야	75,689,989

※ 매각대상부동산의 우월 시 최자(의 15%)가 저당권 금액으로 실시합니다.
※ 단, 입찰공고 된 물건 중 당 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공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도 유효)

3. 입찰일시 및 입찰참가 서류

- 입찰일시 : 2014년 6월 13(일)
 - 가. 1~2차 14:00~14:25
 - 다. 5~6차 15:00~15:25
- 입찰서류 접수 : 14시~16시, 6월 16시
 - 나. 3~4차 14:30~14:55
 - 라. 7~8차 15:30~15:55

4. 입찰장소 : 대한저축은행 본점 3층 연수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입찰가액 이상 최고가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최고가 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 최고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현금 또는 저가입찰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갈음하므로 계약 시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 낙찰자는 3일 이내에 본 계약(계약금 10%)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저축은행에 귀속됩니다.
- 매매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 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목적물 인도시기 지연되는 경우 전금 납부일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시 유의사항

- 매각부동산의 공부 및 지목상의 하차와 행정상의 규제 등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응찰자는 사전에 공부 열람 및 현장 답사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정비, 철거는 매수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찰공고 된 물건 중 당 저축은행 사정에 의해 필요할 경우 별도 취소공고 없이 매각취소 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내용은 당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aehanbank.co.kr에 공고됩니다)
- 문의사항 : 062)527-5701

2014년 5월 29일
대한저축은행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고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고송 선거차량 UCC로고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한 빛 타 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다성드림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김 스타 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혁신도시 토지, 상가, 아파트 주변토지 다량보유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다시살아나는 부동산 시장!! 201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신투자전략 무료 특강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생처럼 살아나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중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소	NC백화점(구.현대백화점)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4.5.29(목)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사전예약)

강/의/내/용

- 2014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광주·전남 토지투자 새로운 전략 및 뜨는 지역 대공개
-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 수익형 부동산 틈새 아이템 투자전략 대공개
- 3천~1억 토지투자로 월세받는 투자비법 공개
- 개별지성공투자하는 비법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영지부동산 아카데미 소장
(현)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다수특강
(현)전국순회 부동산세미나 80회 이상

NAVER 영지R&D 부동산투자연구소